

## 나가오카 덴만구 신사

나가오카쿄시에 있는 나가오카 덴만구 신사는 덴진(天神)이라고 불리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시고 있으며, 현재는 학문의 신으로 숭상받고 있습니다. 덴진의 신사에 걸맞게 특히 시험 전에는 많은 학생이 합격을 기원하러 찾아옵니다. 또한 4월 하순이 되면 경내의 커다란 연못을 건너는 참배길을 따라 키가 큰 철쭉나무가 한꺼번에 붉디붉은 꽃을 피우는데, 이는 가장 잘 알려진 나가오카 덴만구 신사의 명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 덴진의 전설과 나가오카 덴만구 신사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3년)는 뛰어난 학자이자 시인, 그리고 직위가 높은 정치가였습니다. 미치자네는 우다 천황(867~931년) 시대에 조정에서 요직에 올라 있었으나 우다 천황의 퇴위 후, 정적이 꾸민 음모에 휘말려 규슈의 다자이후로 좌천되었습니다. 규슈로 가는 도중에 미치자네는 친구들과 여가를 보냈던 나가오카쿄에 들러 '나의 혼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니'라고 슬프게 추억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미치자네가 다자이후에서 사망한 뒤 교토에서는 자연재해와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미치자네의 원혼이 재앙을 내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미치자네의 분노를 달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자 조정은 미치자네를 학문의 신인 덴진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 이래 덴진을 모시는 신사가 전국 곳곳에 건립되어 그 수가 수천 곳이 넘습니다.

### 하치조가이케 연못과 기리시마 철쭉

첫 도리이를 지나면 참배길은 1638년에 관개용 저수지로 만들어진 하치조가이케 연못을 건너 본전으로 이어집니다. 커다란 연못에서 신전에 가까운 쪽에는 일본의 전통 연회 요리인 가이세키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요릿집이 있는데 물 위에 객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경내에는 벚꽃과 창포, 철쭉이 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붉디붉은 꽃을 피우는 기리시마 철쭉입니다. 연못을 건너는 참배길을 따라 심어져 있는데 키가 큰 부분은 2.5m에 이르며, 수령은 17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 본전과 매화나무

경내로 더 들어가 돌계단을 올라가면 최근에 만들어진 단풍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그 옆을 지나가면 본전에 도착합니다. 이 붉은색으로 칠한 본전은 1941년에 헤이안 신궁에서 이축된 것으로서 교토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좋아했던 매화나무 네 그루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덴진

의 사자(使者)인 소의 석상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 외에도 몇몇 소의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본전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오솔길을 따라가면 농업의 신을 모시는 나가오카이나리다이묘진이라는 말사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약 300 그루의 매화나무 숲이 있는데, 겹꽃을 피우는 야에우메 매화나무와 능수매, 향기가 짙은 분고우메 매화나무, 열매를 맺는 난코우메 매화나무, 분홍색과 흰색 꽃을 피우는 품종 ‘오모이노마마’, 벚꽃과 닮은 꽃을 피우는 사쿠라우메 매화나무, 선명한 홍매,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품종의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3월 상순으로 매화나무 숲을 따라 난 오솔길에는 벤치가 놓여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가오카 텐만구 신사와 매화나무 숲 입장료는 무료입니다.